

‘텅텅 빈’ 빛가람혁신도시...자영업자들 손님 없어 떠난다

코로나19 이어 고물가 등 악재 겹쳐...주요 상권도 임대 상가 즐비 나주 집합상가 공실률 42.1%...전국 주요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아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분명히 갈수록 늘어난다는데, 손님은 점점 없어진다는 게 아이러니한거죠.”

18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빛가람혁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인근 식당, 카페, 유흥업소, 문화생활공간이 위치한 주요 상업 공간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거리에는 상가 건물 곳곳에는 임대 공고가 붙어 등성등성 비어있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카페, 식당 등도 영업만 할 뿐 내부에는 손님이 없는 곳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복층으로 구성된 복합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 수요가 많은 1층에만 불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거나, 한 층당 2개 이상의 상가가 비어있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권은 자영업자들이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있어서 임대료는 가장 비싼데, 최근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되니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과거

보다 줄어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해당 상권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리잡은 곳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메인 거리’로 불리고 있다. 지역 내 인기있는 오락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한 곳에 모여 상권을 형성한 만큼,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임대료가 월 4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비상계엄 사태, 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싼 임대료에 대출을 거둬들이던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됐다.

메인 거리 건너편 빛가람호수공원을 둘러싼 인근 상권 역시 불이 꺼진 채 임대 공고문만 붙어있는 상가가 많았다. 한 옷가게 앞에는 이달 말 이후 문을 닫는다는 공고와 함께 점포정리 할인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5년째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47)씨는 “날이 다 풀려가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들어온



18일 빛가람혁신도시 주요 상권에 위치한 상가에 많은 임대 공고문이 붙어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주요 신도시 가운데 집합상가 공실률이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옷들이 20%도 채 팔리지 않아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어 “인근 자영업자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는데 카페, 음식점 할 것 없이 모두 손님

이 줄고 장사가 잘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0~2023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생활 필수품목 외에는 소비를 줄이고 있는 현재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마땅한 소비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빛가람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주민들은 기본적인 물품들은 지역에 위치한 마트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는 경우 여전히 주말마다 광주와 나주 구도심에 위치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 A(여·37)씨는 “빛가람혁신도시에는 마땅한 상권이랄 것이 없는 것 같다”며 “메인 거리 상권이라기에는 그냥 식당이 모여 있는 집합상가에 더럽다는 느낌이라서 고정 소비자를 만들기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4분기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42.1%로 전국 주요 신도시 가운데 김천혁신도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배전 기술력 소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 등

한전KDN이 지난 12~14일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배전자동화 설비,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등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사진>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는 매년 개최되는 에너지 융합 기술 전시회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한전KDN,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 LG에너지솔루션 등 280여개의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했다.

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배전자동화 통신중계장치(AWB/PLC) 등 3종의 솔루션을 제시, 배전계통 기술력을 소개했다.

우선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는 배전자동화 시스템 원격 운영의 핵심 장치로, 배전 선로의 데이터 취득 및 개폐기 감시·제어 기능을 갖췄다. 한전KDN은 기존의 단말장치 성능에 보안기술과 TCP/IP(서로 다른 시스템의 컴퓨터를 연결하



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통신기능을 추가해 파일 전송 속도를 개선했다.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연계를 지원하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선로의 전력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배전자동화용 통신중계장치’는 배전계통 전반에 대한 현장 감시를 위한 통신중계장치로, 광통신

케이블 포설이 불가능한 지역의 통신운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은 배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솔루션들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과 활용 등 미래 예측과 개선으로 국민의 안정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한국남부발전과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 협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지난 17일 한국남부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발전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에너지 기술 공동 개발 및 실증연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다.

구체적으로 켄텍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OSPO 개방형 테크노브리지 실증제품 기술지원 ▲에너지 분야 협력가능 사업 발굴 등을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켄텍

의 연구 역량과 한국남부발전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실질적인 에너지 기술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기자재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해외 로드쇼 참가·운영 자금 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내 농기자재 수출 및 수출 예정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 의약품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여, 해외 로드쇼 참가, 맞춤형 수출 컨설팅,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등 각 기업들의 품목들을 해외에 선보이거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별 신청 마감일은 ▲수출상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2월 26일) ▲해외 로드쇼(2월 21일)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2월 28일)이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3월에 개최되는 베트남 ‘AGRITECHNICA 박람회’와 중국 상하이 ‘CAC 국제 농업 박람회’에서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력거래소, REC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도입

신재생사업자 납부 편의성 대폭 개선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17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금융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거래수수료 납부 등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따라 고령 또는 금융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만1000여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존 가상계좌 납부 방식과 병행 운영된다. 사업자들은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 등 스스로 편한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신재생시스템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첫 자동 출금은 오는 4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